



국내 유리산업의 현실과 유리병 산업전망

Market trend of Glass Bottle Industry

방정훈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부장

인간이 유리를 만들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4,000여년이나 된다. 유리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래 역사의 흐름과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수많은 변화를 겪어오면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유리의 역사가 오래된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리가 쓰여지고 사용되는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좁다.

예를들어 유리와 비슷한 철, 도자기, 나무, 돌 등이 얼마나 우리생활 깊숙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한다면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산업, 조선, 건설산업은 세계 우위를 다투고 있으며 이 분야의 수출이 우리나라 주 수출 품목으로서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유리분야만은 정부의 특별한 지원도 없을뿐더러 유리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일제시대에 사용하던 시설이나 방법을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리산업은 다른 선진

국에 비하여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유리나 병유리, 생활 용기 등 수많은 유리들이 우리 주위에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유리가 새삼스럽게 낙후되었다느니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느니 하는 그러한 말조차 무슨 뜻인지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것은 몇 종류 안되는 유리들이 오래전부터 외국에서 도입된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매우 단순한 유리들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리산업은 처음부터 판에 박힌 것처럼 반복되어 왔으며 또 많은 유리 작업들이 추측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리산업은 오랫동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인 불황속에 헤메고 있으며 수많은 군소공장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유리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차적으로는 국가의 유리산

[표 1] 국내 유리제품 연도별 생산·판매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종 류	구 분		2013년		
			생산량	판매량	판매 금액
음료병	주류병	맥주병	100,804	93,969	43,475
		소주병	144,653	162,005	76,755
		양잠주	46,217	42,815	27,811
		소계	291,674	298,789	148,041
	청량 음료		10,929	8,833	4,389
	건강영양병		198,854	201,518	102,295
	중 계		501,457	509,140	106,684
	식품, 조미료병		68,358	70,062	46,865
	화장품병		10,383	10,565	38,859
	의약·농약병		45,651	44,818	26,718
기타병		85	86	41	
수출병		13,579	13,255	20,960	
합 계		639,513	647,927	399,169	

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리는 값싸고 흔하여 아무데나 버려져 있는 보잘 것 없고 잘 깨지는 물질로만 보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유리관련 산업은 전통유리에서 첨단유리에 이르기까지 기술력이 현저히 향상되고 있으며,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일부 전통유리 분야에서는 내수 및 수출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리병은 1,500도씨의 고온에서 성형된 규사를 주성분으로 한 비금속 무기물 제품으로서 외관이 미려하고 그 원료를 흙의 일종인 모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생측면에서도 탁월하여 고급약병, 음료병 및 술병을 중심으로 하여 꾸준한 수요가 신장되고 있다.

즉, 규사, 석회석, 소다회 등을 비금속 원료로

하여 고온에서 용융한 뒤 내용물의 저장, 수송에 사용되는 포장용기 산업으로 일부 규사 및 소다회 일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종이팩, 합성수지용기, 캔 등과 달리 유리병을 세척 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파쇄하여 다시 유리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병의 중요성은 계속 증대될 것이다.

1994년 식음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유리병 수요도 역시 호황을 맞이하였으나, 95년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캔, PET용기 등 대체용기의 유리병시장 잠식으로 유리병 수요 경기가 침체국면을 지속하였으며 90년대 초 호황에 따른 업계의 설비 증설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났다.

98년에는 IMF 체제하의 경기침체에 따른 주류, 건강음료, 화장품 등 소비재 수요의 부진으로 판매실적이 25.6%나 급감하였다.



특 집

[표 2] 유리병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볼, 톤)

2013년	수출	국명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계
		톤	9,063	548	1,908	536	603	18,120
		천\$	12,970	3,542	3,431	2,998	2,898	37,383
2013년	수입	국명	중국	일본	대만	프랑스	이탈리아	계
		톤	9,727	1,006	3,674	706	604	16,170
		천\$	13,611	7,108	2,548	1,774	1,355	29,526

99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실질소득수준의 증가로 소득탄력성이 높은 양주 등 고급주류 병 및 건강음료병 그리고 화장품병에 대한 수요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또한 주세를 인상 발표에 따른 소주사재기 영향 등으로

열등재인 소주병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유리병 전체판매량은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다.

2000년 들어서는 경기회복으로 맥주병과 위스키병이 증가세를 보이고 식품조리병, 화장품병, 약병 등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소주에 대한 수요가 희석되고 금비의 이천공장 용해로 보수로 인하여 99년 전체 유리병 판매량의 22%를 차지하였던 소주병의 판매가 전년 동기대비 38%나 감소함에 따라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4.2% 증가하고 판매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99년 하반기부터 자동제병 업계는 공장라인을 100%에 가깝게 가동하고 있으나 주문량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99년과 2000년 상반기 유리병판매량은 97년 이전보다 84% 수준을 보였다.

96년까지 유리자동제병 업계는 용해로 생산능력이 1일 3,275톤이었으나 97년부터 공장가동 중단이라는 극약처방과 채산성이 좋은 제품으로의 특화를 실시하여 99년말까지 1일 총 83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용해로의 불이 꺼졌다.

지난 98년을 전후하여 업체들의 인수, 합병과 사업정리과정에서 생산업체가 12개사에서

[표 3] 일본의 유리병 출하 실적 (단위 : 천볼, 톤, %)

용도	구분	2013년
약품 음료	수량	2,050,810
	중량	204,431
화장품	수량	68,399
	중량	5,958
식품, 조미료	수량	1,788,797
	중량	309,722
우 유	수량	85,710
	중량	13,962
청주 1.8리터	수량	62,636
	중량	59,697
청주(중, 소)	수량	441,542
	중량	119,451
맥 주	수량	94,592
	중량	37,998
서양 잡술	수량	367,057
	중량	139,402
음 료	수량	1,439,237
	중량	256,864
합 계	수량	6,398,780
	중량	1,147,485

8개사로 줄고 생산능력이 연간 20만톤 이상 축소된 것이다.

결국 공급부족 현상은 수요의 성장보다는 생산능력의 감축을 통한공급의 축소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과거 공급과잉과 경기 주기성으로 경영난을 경험한 업계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현한 결과인 것이다.

최근 국내 유리병의 생산업체 중 자동제병 업체가 전체 유리병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약 60여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의 유리병의 점유율을 보면, 음료병이 전체 유리병 생산량의 77%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장품병이 증가세에 있다.

최근 낮은 도수의 소주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는데 힘입어 음료병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국내 화장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화장품병에 대한 주문이 쏟아져 생산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리병의 수출입현황을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는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약품병, 술병 및 음료병을 중심으로 유리병이 생산되고 있고 그 생산량은 100만톤을 넘고 있다.

과거보다는 유리병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수경기가 활발하지 않아 유리병 산업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유리병업계는 99년 하반기부터 100%에 가까이 공장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수익성과 자금흐름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수요의 성장보다는 생산능력의 감축을

통한 공급의 축소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다. 과거 공급과잉과 경기 주기성으로 경영난을 경험한 업계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실현한 결과인 것이다.

현재 유리병 시장은 연간 4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음료와 주류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유리병 시장은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유리병에 대한 수요는 음료 및 주류산업의 소비성향이 꾸준히 상향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환경문제로 인해 재활용이 용이하고 환경친화적인 유리용기 사용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향후 유리병업계는 경량화와 강도화로 용기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으로 재무안정성을 더욱 제고하고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